



필리핀 산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지난 달 필리핀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공식적으로 8,000여 명에 이르는 사상자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번 산사태의 원인을 둘러싸고 필리핀 정부와 환경단체 간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번 산사태의 원인이 사고 발생 전 2주 동안 내린 500ml가 넘는 집중호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예년의 2배가 넘는 강수량이 집중적으로 내린 데다가 사고 전 발생했던 진도 2.6의 지진이 대규모 산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환경 전문가들, 산사태의 원인은 불법 벌목

그러나 환경 전문가들은 이번 산사태의 원인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필리핀 정부가 계속되는 불법 벌목을 묵인해 이번과 같은 대규모 산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불법 벌목 묵인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전을 일구고 생계 유지를 위한 불법벌목이 필리핀 거의 전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불법 벌목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도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산림이 지난 3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훼손된 것으로 산림의 황폐화가 이번 참사의 큰 요인이었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대규모 산사태에 대한 유감과 사망자에 대한 애도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가 무고한 산림과 인명을 해치는 불법벌목을 확실히 차단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필리핀 국민 모두가 정부가 후원한 살인적인 산사태에 파묻힐지도 모른다고 감히 추측을 합니다.

산림관리 잘 하면 환경재앙은 예방 가능

필리핀 산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산림을 제대로 관리하면 이번과 같은 재앙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림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며 그 중에서 중요한 기능은 홍수 조절 및 산사태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산림면적률이 높은 나라는 산림상태가 좋고 나쁨에 따라 물을 머금은 양이 달라집니다.

현재 우리나라 산림이 머금은 물의 양은 수자원 총량의 14%인 약 180억 톤으로 그 양이 아직 낮은 편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산림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여 필리핀에서 발생한 대규모 재앙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온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받은 만큼 돌려줍니다.